K-치즈 임실군·K-와인 영동군, 맞손

자매결연 협약 체결… 농가 생산 임실치즈·영동와인 판매·홍보 시너지 효과 기대

임실군은 지난 10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영동군과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대표 K-치즈를 자랑하는 임실군이 K-와인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과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10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영동군과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심 민 임실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과 신현광 영동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지역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등 폭넓은 상호 교류 △민간 단체와 예술 등 교류 확대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물론, 상호 관심 사항 교류 등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합의하여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지자체는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임실치즈를 영동군에서 판매하고, 영동와인을 임실군에서 함께 판매·홍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한 임실치즈축제제전위와 영동와인축제부서가 협력하는 활발한 축제 교류를 함께 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5대 농악의 하나인 임실필봉농악과 난계 박연의 고장으로 유명한 영동 국악을 교류하는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천만 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5 임실방문의 해'와 '2025 영동세계 국악 엑스포' 개최의 성공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영철 영동군수는 임실군과 영동군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역사문화관 내에 있는 세계 발효 전통주 전시실에 제11회 한국와인대상에서 수상한 영동와인 미르아토 레드 드라이 등 총 11종을 기증했다.

영동군 방문단은 자매결연 협약식이 끝난 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실 산타축제가 열리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람하고, 임실의 치즈 산업과 주요 사업들을 벤치마킹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자매결연 협약으로 K-치즈인 임실치즈와 K-와인인 영동와인이 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활발한 교류를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14~15일 순창발효테마파크서 다채로운 체험·공연 등 진행

'2024 순창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테마파크 일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이 곳곳에 조성돼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줄 마술쇼, 솜사탕 공연 게릴라 이벤트 등 다양한 어린이 공연이 마련되며, 재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겨울 놀이로 얼음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등 놀이마켓이 운영되고, 크리스마스 젤 캔들, 우드 무드등, 마크라메 루돌프, 크리스마스 동전 카드지갑, 회오리 소라 풍경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준비된다.

재단이 주관하는 체험 행사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마카롱 만들기, 미니 트리 만들기, 워터볼 만들기가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매콤관 입점 상가인 얌얌스쿨에서는 크리스마스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스토리 마켓 2동에 위치한 추억의 교실에서는 인생네컷 촬영을 즐길 수 있으며, 고고관 1층에서는 기부 물품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도네이션 플리마켓과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음식스토리 마켓 1동 음식점과 카페, 매콤관 내 분식, 디저트, 쿠킹 체험을 비롯해 호떡, 국화빵, 달고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이 배치돼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윤숙 대표는 "이번 행사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느끼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순창의 겨울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의료-돌봄 체계 마련 탄력

남원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공모 선정

남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안정적인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20개 지자체에서 15개 지자체를 추가한 총 35개 지자체를 올해 시범사업 최종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는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어 남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모델 개발, 전담조직 구성,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및 전문연구원 컨설팅 등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 행정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북 SW미래채움 전문가 특강 13일 개최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SW미래채움이 주관하는 '전북 SW미래채움 전문가 특강'을 오는 13일 오후 2시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성우 남도형씨를 초대하여 '덕업일치가 이루어낸 감사한 현재의 모습'을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SW·AI(소프트웨어·인공지능)와 미래 산업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리로, 도내 초·중등 학생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SW와 AI 융합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SW미래채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실질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번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은 SW와 AI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동기와 목표를 설정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SW·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청소년들의 꿈과 열망을 구체화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북자치도 숲가꾸기 시군평가 최우수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숲가꾸기사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 14개 시군 기관별 숲가꾸기 우수 사업지 선정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전파 및 기능별 산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시행되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제거목 및 미래목 선정 적정성과 지난 4월 이뤄진 숲가꾸기 사업 현장토론회에서 나눈 내용들을 잘 수행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남원시는 산불예방 숲 가꾸기, 공익숲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숲의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림지풀베기 및 도로변 덩굴제거 등을 통해 조림목 육성, 경관 제고에 기여했다.

안길재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숲가꾸기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자원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예담엔지니어링, 남원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 기부

남원시는 11일, 2024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참여기업인 ㈜예담엔지니어링(대표 김장관)이 남원지역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담엔지니어링은 남원시 운봉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경효의집에 2천여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부, 이번 기부로 경효의 집에 9kW 용량의 설비가 설치되어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사용해 매년 약 14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장관 대표는 "이번 기부가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임실군이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4-2025 절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

임실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료 접종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이민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접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독감 유료 접종 비용은 보건의료원 방문 시 1만1,000원에 맞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